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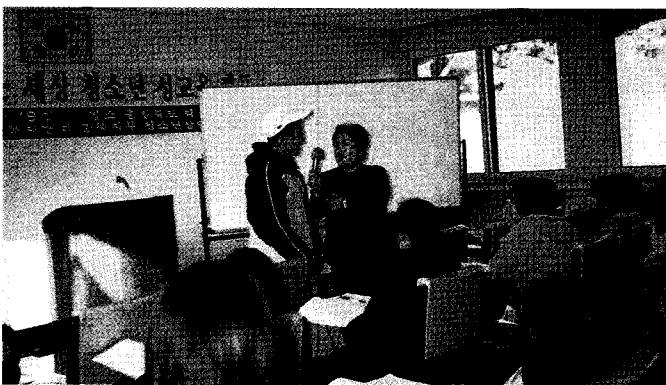


인간의 성(性)을 아끼고 사랑하자

이수영/충북 일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 교에서 성교육하면 그냥 낮부끄럽고 웃음만 나왔던 성교육이었다. 또한 이미 성에 ——— 대해서는 친구들끼리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왔던 것이기에 나 스스로 또한, 같이 갔던 친구들 모두 성에 대해 알고 있다는 교만과 함께 단순히 학교 수업 안하고 놀러간다는 기분으로 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처음 프로그램인 성교육부터 뭔가가 달랐다. 여학교에 있어서 그런지 남자가 눈에 띄었다. 순간 뭔지 모르게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와 함께 성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그 자체로 재미였다. 하루가 가고 그 다음날이 가고 나에게 있어 작은 성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고 있음을 느꼈다.

TV에서 보던, 영화에서 보던, 그 단순함의 성에서 진정한 성이 무엇인가 느끼는 것 같았다. 아니 느꼈다.

가령 학교에서 낙태에 관한 비디오를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봐야한다는 생각, 같이 보면서 저절로 탄성이 나오는 것은..., 쾌락과 사랑과 생명,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너무나 쾌락에 빠져있던 성이 낙태 기구 그리고 성병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

었다. 남학생과 성교육을 받는 것은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여학생들끼리 있을 땐 말소리까지 죽여가며 은밀한 말소리와 웃음, 더럽다는 생각이 입으로 전해지는 시간이었지만, 남학생들과 같은 공간에 존재함은 눈에 힘을 주고 작은 책임을 심어 주는 것이다. 잘못된 성 지식으로, 은밀한 성지식으로 많은 것을 잃을 뻔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음이 생각한다. 섹스가 사람을 완벽하게 한다. 그때의 지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섹스는 성관계만을 뜻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의 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생명, 쾌락이었던 것이다.

남자에 대해 알고 여자에 대해 알고 인간에 대해 아는 계기가 되었다.

성교육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모두들 조용했던 것은 분명 즐리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모두들 내색하지 않으며 소리 죽여 머리 속이 아닌 마음 속으로 스스로 물을 것이다. 또한 스스로 대답할 것이다. 또한 스스로 다짐할 것이다. 촛불의식 속에서 인간에 대해 창피함이 아닌 중요한 책임 속에서 인간적인 대화를 말이다.

잘못된 눈과 귀로 우린 얼마나 큰 혼란과 아주 큰 행운을 놓칠 뻔했는가.

성교육 캠프가 아니었더라면 나 자신이 얼마나 유치해지고 무지한 인간이었을까. 성교육은 그대로 인간의 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육이었다.

더불어 우리를 가슴 속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배려가 자리잡게 되었다.